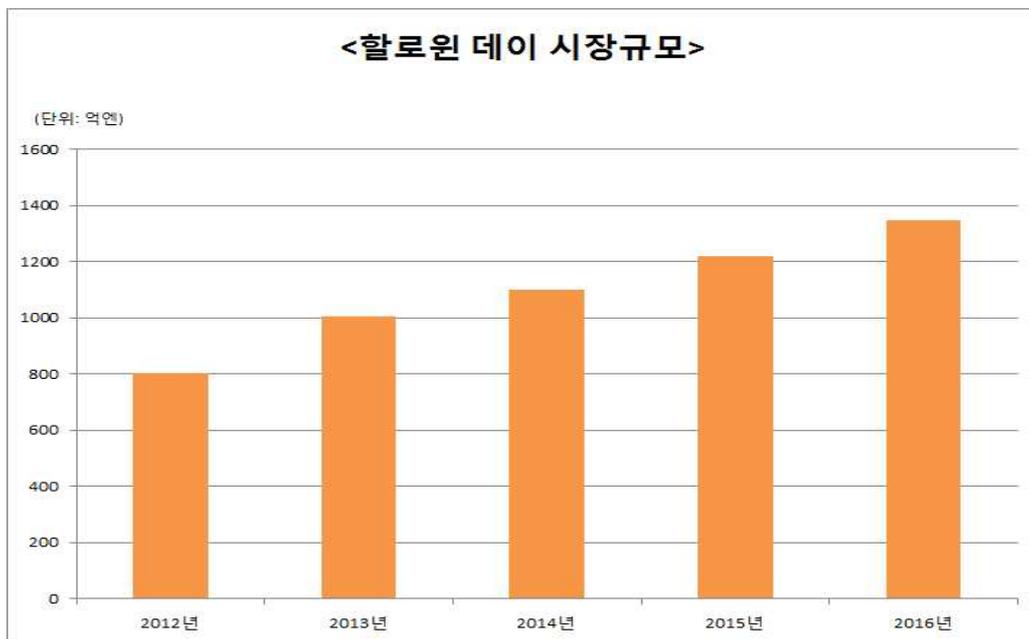


할로윈 데이 연계 한국농식품 제안

오사카지사 자체기획단신 26호(2016. 10 31.

일본의 할로윈 데이 시장현황

- 일본의 할로윈 시장은 해마다 성장 추세이며, 2016년도 시장은 전년 대비 10% 성장한 1,345억엔 규모를 보이고 있음
 - 할로윈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시장규모(1,340억엔)를 넘어 크리스마스(7천억엔) 다음으로 큰 기념일 시장으로 성장
- ※ 할로윈 데이 : 유럽 기원의 행사로 그리스도교의 만성절의 전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축제로 정착하고 있음. 영령이나 마녀 등으로 가장하여 행진하거나 호박 등불로 장식하거나 하여 아이들이 과자를 받는 등의 이벤트가 행하여지고 있음(일본 기념일협회)



※ 출처 : 일본 기념일문화연구소의 추계 자료(기념일협회)

할로윈 데이 활용 판매전략 현황

● ‘가족 기념일을 만들자’

- 일본 식품제조업체인 에자키글리고는 10월 31일을 ‘클리어 아줌마 시츄의 기념일’로 인정받아 할로윈 데이 메뉴제안
- 발렌타인 데이는 초코릿이라는 인지도가 높은 카데고리가 있지만, 할로윈 데이의 파티메뉴로서는 일정한 메뉴가 없는 점에 착안하여 1999년부터 발매된 ‘클리어 아줌마’시리즈에 할로윈 데이 메뉴로 제안하며 가족애를 내세워 판매확대를 도모하고 있음



※ 출처 : 「クレアおばさんのシチューの日」江崎グリコホームページ

● ‘와카야마산 감으로 하로윈을 즐기자!’

- JA그룹 와카야마는 감 출하 시기에 맞춰 2013년부터 할로윈 파티용으로 제안하고 있음
- 인지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5% 판매 증가



- 일본 각 유통업체는 할로윈 데이를 기점으로 관련 상품 판매확대를 위해 판촉물 부착 등을 통해 판매촉진을 하고 있음
 - 할로윈 데이인 10월 31일은 관련식품이 평소의 20% 정도 판매 증가를 보임(바이어 의견).



시사점

- 일본에서의 할로윈 데이의 인기상승으로 인해 관련식품 시장 성장도 예상되며 특히 할로윈 데이는 특정식품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관련 한국 농식품의 제안의 장으로 활용이 기대됨
- 파프리카는 할로윈 메뉴의 색깔을 내는 데 중요한 식재료로서 활용이 가능하여 잠재적인 할로윈 메뉴 품목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기대됨

- 현재 파프리카는 적색, 노란색이 대부분인데 할로윈 데이에 맞는 오렌지색과 보라색 파프리카를 제안함으로 신규 수요창출도 기대됨



파프리카 이미지

-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로서 추워지는 시점이기에 김치를 활용한 찌개메뉴로서도 활용도가 기대됨



할로윈 김치(우각)

- 또한,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시 할로윈 데이와 연계한 관련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제안노력도 요구됨

※ 참조 : 일본 기념일협회

[문의 : 오사카지사 유정열 / yjy@atcenter.or.jp]